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도덕 이론을 전개하거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도덕적 용어들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히 분석하고, 도덕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장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이들의 입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윤리학이 실천적 원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수행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윤리학의 탐구 과정에서 주관적 이해(理解)를 배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도덕적 추론에 대한 탐구가 가치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적 논의를 이루는 개념들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⑤ 윤리학이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간과한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일체의 생명체는 모두 죽어 수명은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업(業)에 따라 각각 선악의 과보를 받는다. 복을 닦으면 천상으로 올라가고 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도(道)를 닦으면 태어남과 죽음을 끊고 열반에 든다.  
 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한다. 반면 현자는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한다.

- ① 갑: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 ② 갑: 삶과 죽음의 순환은 인간의 행위와는 관련 없는 현상이다.
- ③ 을: 좋고 나쁨은 전적으로 감각적 경험에 의해 판단된다.
- ④ 을: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 ⑤ 갑, 을: 죽음은 인간 신체의 구성 요소가 흩어지는 과정이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에 대한 오해는 그것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주는 행위 자체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생동감이 생긴다. 또한 사랑은 상대방을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미숙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남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 ①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 ②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면서 동시에 능동적 활동의 성격을 띤다.
- ③ 물질과 달리 사랑에는 도저히 줄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⑤ 사랑을 통해 고립감을 극복하면서도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주민이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을: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주민의 문화를 무작정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국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주류 사회의 문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이주민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기존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일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단일한 문화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을: 국가가 주도하여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보호한다면 이주민의 국가적 충성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적 안정이 도모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은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할 때 가능해집니다.

-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화만을 우월한 것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 ②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가?
- ③ 이주민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기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④ 국가의 사회 정책이 성취해야 할 핵심적 목표는 사회 통합인가?
- ⑤ 다양한 문화의 평등한 공존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쉽고 편한 일은 모두가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나 싫어한다. 그러므로 일을 나누어 맡는 데 있어서 한계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제각기 자기 마음에도 일을 맡게 되어 공적만 다투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을: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그로 인하여 항상 일정한 마음[恒心]이 없어진다. 항상 일정한 마음이 없어지면 방자함, 편벽됨, 사치스러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 죄에 빠지게 된 연후에 쫓아가서 벌을 주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직업 활동을 통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확충할 수 있다.  
 ㄴ. 갑: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분야를 다스려야 한다.  
 ㄷ. 을: 자기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유지에 힘써야 한다.  
 ㄹ. 갑, 을: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분담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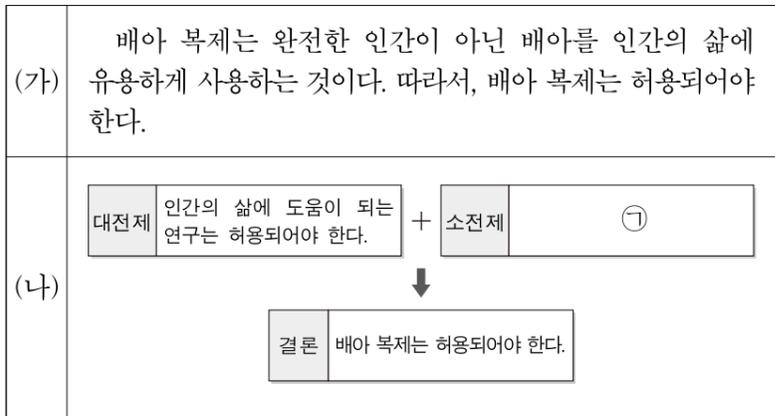
6.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나) 사물은 모두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자기를 상대방이 보면 '저것'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자기에 대한 것만 알 뿐이다. 그러기에 이르기를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것에 의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자연에 비추어 생각한다.

- ① (가): 삼독(三毒)을 추구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지비를 실천해야 한다.
- ② (가): 무지(無知)하고 무욕(無欲)하며 소박(素朴)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③ (나): 인위적 분별에서 벗어나 도(道)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해야 한다.
- ④ (나): 타고난 자연적 본성을 확충하기 위한 인의(仁義)의 수양이 필요하다.
- ⑤ (가), (나): 모든 현상에 원인(因)과 조건(緣)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7.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아 복제 기술의 응용은 인간의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 ② 배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므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해야 한다.
- ③ 배아 복제를 통한 새로운 치료법은 막대한 경제적 효용을 가져온다.
- ④ 배아 복제 허용은 결국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져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
- ⑤ 인간이 아닌 배아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8.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형벌이 나온다. 사형을 대체한 중신 노역형만으로도 형벌은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닌다.

을: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호이다. 살인자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정초된 보편적인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 ① 갑: 사형은 법률이 규정한 살인 금지 규정과 모순되는 형벌이다.
- ② 을: 사형은 시민들뿐 아니라 살인자의 동의를 확보한 정당한 형벌이다.
- ③ 병: 사형은 살인에 대한 합당한 보복으로서 공적 정의에 부합한다.
- ④ 갑, 을: 살인범은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되므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 ⑤ 을, 병: 사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인범의 교화나 개선이 아니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이 절대 군주에 복종해야 하는 상태보다 타인의 부당한 의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연 상태가 훨씬 낫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사적 재판을 최고 권력인 입법부에 위임한 시민 사회는 절대 군주제와 양립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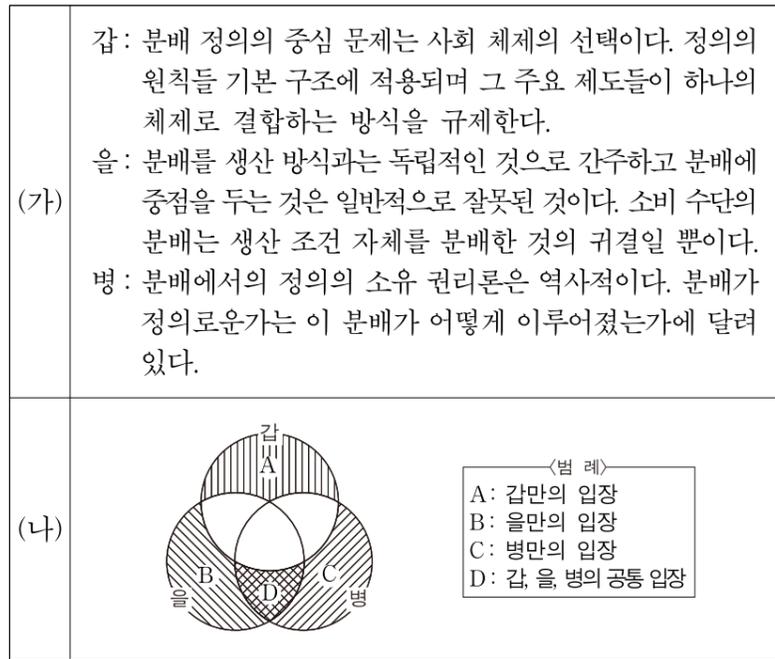
을: 사회 계약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신(人身) 및 모든 능력과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하'에 둔다는 데 있다. 이때 그러한 하나의 결합체를 구성하는 성원들인 우리 모두는 각자를 떼어 낼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보 기>—

- ㄱ. 갑: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사적 처벌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성된다.
- ㄴ. 을: 국가는 사회 계약자의 사적 인격과 공적 인격을 모두 대변한다.
- ㄷ. 을: 사회 계약은 타 성원들과의 계약인 동시에 자신과의 계약이다.
- ㄹ. 갑, 을: 사회 계약은 절대 군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주권 분할을 요구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정의 원칙은 현실의 세계에서도 공정하게 합의될 수 있다.
- ㄴ. B: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 ㄷ. C: 국가의 개입과 개인의 소유 권리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다.
- ㄹ. D: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 확대는 분배 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 목적에 대한 수단이다.  
 을: 기술이 도구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기술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표현은 아니다. 기술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

- ① 갑: 과학 기술의 발전 논리는 인간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 ② 갑: 과학 기술의 선악 여부는 기술 활용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③ 을: 과학 기술은 현대인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 ④ 을: 과학 기술의 본질을 기술적인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과학 기술을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理想)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은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보 기>

ㄱ. 정의 실현을 위해 현실적인 힘의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  
 ㄴ. 도덕적 선의지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ㄷ. 집단은 개인의 합이며 집단 간 문제는 개인 간 문제로 환원된다.  
 ㄹ. 폭력의 부작용을 고려해 폭력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곧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은 사람이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해야 할 것을 의욕하지 않는다.  
 을: 공리의 원리는 고통과 쾌락이 우리를 지배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사상 체계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목표는 이성 또는 법률의 손으로 조직적인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도덕 법칙은 자율의 법칙일 뿐 강요의 법칙은 아니다.  
 ㄴ. 갑: 의무 의식이란 실천 이성이 부과한 명령을 따르려는 것이다.  
 ㄷ. 을: 최대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ㄹ. 갑, 을: 도덕적 행위가 행위지의 쾌락을 항상 증진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 가상 편지의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오늘날 문화는 모든 것을 동질화시키고 있네. 영화와 라디오와 잡지는 개개 분야에 있어서나 전체적으로나 획일화된 체계를 만들어 내고 있지. 독점하에서 대중문화는 모두 획일적 모습을 하고 있는데, 독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골격과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네.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이 독점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지.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되고 있네. 그들은 스스로를 '예술'이 아니라 '산업'이라 부르다네.

- ① 문화 산업은 사회에 대한 대중의 비판 의식을 고양한다.
- ② 문화 산업의 규격화된 생산물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 ③ 문화 산업은 새로움을 배제하고 오직 동질성만을 재생산한다.
- ④ 문화 산업은 대중이 어떤 것도 욕구할 수 없도록 대중을 통제한다.
- ⑤ 문화 산업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감상자에게 고요한 체험이 된다.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특정한 법에 불복종하기 전에 효용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불복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p> <p>을: 정의롭지 못한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한 법에 국한된다.</p> <p>병: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야 한다.</p>
(나)	<p>&lt;법 레&gt;          →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lt;예 시&gt;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정의 실현이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임을 간과한다.
- ② B: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따라 전개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E: 시민 불복종 이전에 합법적인 방법들을 시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D: 개인의 양심적 거부가 시민 불복종과 개념적으로 구분됨을 간과한다.
- ⑤ F: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법률에는 불복종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로 나가야만 하며, 그 속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내에서 자신의 일을 충족시켰다면 그는 다시 자기 집의 보호로 돌아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양극적 긴장과 관련된 양 측면은 모두 필수적이므로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은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닫힘의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거주는 집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표현으로, 단순한 공간의 점유가 아닌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 ① 거주 공간은 외부와는 단절된 닫힌 공간이다.
- ② 외부 공간은 위험과 희생이 아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 ③ 거주 공간을 외부 공간과 구분하려는 시도를 삼가야 한다.
- ④ 거주 공간은 진정한 삶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이다.
- ⑤ 거주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만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전략 중 하나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일 뿐이다. 불가능한 평화를 얻고자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국가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은 없다. 평화가 필요한 경우는 그것이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때뿐이다.

을: 모든 법적 체제는 그 안에 있는 인격들과 관련해 볼 때, 한 민족 안에서 인간들의 국가 시민법에 의한 체제[國家法], 상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국제법에 의한 체제[國際法], 하나의 보편적인 인류 국가의 시민으로 보일 수 있는 한에서, 세계 시민법에 의한 체제[世界市民法]이다.

- ① 갑은 힘의 균형으로 전쟁을 억지함으로써 영구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② 을은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법으로 국내법을 대체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자국의 이익을 국가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로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실현의 시도가 유의미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힘의 논리보다는 국제법을 통해 국제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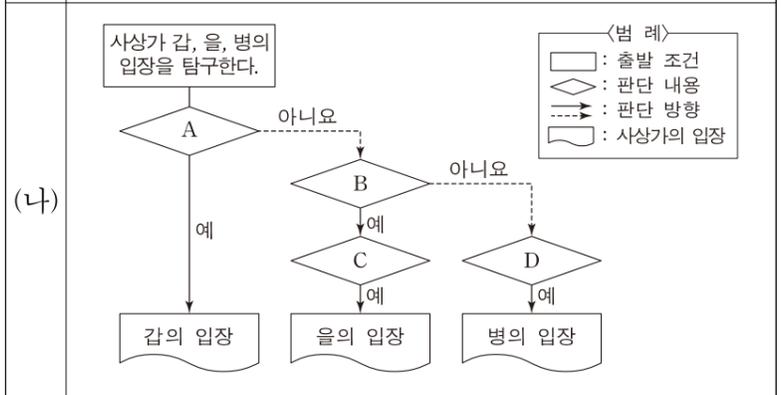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론을 통해 도달되는 합의는 각 개인의 '예' 또는 '아니요'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자기 중심적 관점의 극복에도 달려 있다. 비판이 가능한 주장들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가 개인에게 없다면 도달된 합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적일 수 없다. 반대로 모든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개인들의 연대적인 공감대가 없다면 보편적 동의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해결에 결코 이를 수 없다. 담론 윤리의 의사 결정 절차는 이 두 측면의 내적 관계를 고려한다. 즉 개인의 자율성과 서로에게 공유된 생활 방식들을 인정하며 이루어진다.

- ① 돈과 권력 등의 외부 요소가 담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② 담론 참여자들은 타인의 의견과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
- ③ 토론이 합의에 도달하려면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 ④ 개인의 도덕 판단만으로는 보편타당한 규범을 성립시킬 수 없다.
- ⑤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결과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생명체가 선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자신의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을 실현하려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다.  
 을: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병: 동물과 인간의 몸은 자동 장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영혼은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운동이나 생리 현상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보 기>

- ㄱ. A: 동식물의 기본적 이익은 인간의 부차적 이익에 항상 우선하는가?
- ㄴ. B: 도덕적 무능력자도 도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ㄷ. C: 동물 배려 의무는 동물이 지니는 수단적 가치에 근거하는가?
- ㄹ. D: 오직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신에게 얼마만큼 포기하도록 강요하느냐는, 우리가 막을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 공리주의자에게는 유행에 맞는 옷, 값비싼 저녁, 더 큰 집, 화려한 자동차 등은 극단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 ① 개인뿐 아니라 국가나 국제 기구도 원조 의무의 주체인가?
- ② 원조는 친소와 무관하게 모든 빈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원조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가?
- ④ 해외 원조의 목적은 전 인류의 차원에서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는 것인가?
- ⑤ 해외 원조는 원조 주체의 행복은 감소시키지만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